



특 집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긴급취재

# 구제역 66년만에 중부지역 강타 - 돈육 수출탑 붕괴

파주서 첫 발생후 홍성·보령·화성·용인·충주로 확산  
보호지역 백신접종·경계지역 이동제한 조치  
이동제한지역 돼지 적체 심각 - 양돈농 대책요구 농성

구제역!

그동안 대만과 중국에서 들려오는 발병 소식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가슴조이던 일이 기어코 한반도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청정국으로 남아있던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30여년간 공들여 쌓아온 8만톤이라는 돼지고기 수출탑도 '구제역' 비보 한 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했다. 구제역을 진단한 3월26일은 실로 한국 축산사에 수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1934년 이래 발생이 없던 구제역이 66년만에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했다. 당초 3월27일

농림부가 파주에서 '수포성질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할때만 해도, 혹시 구제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면 자위하던 순진한 생각도 6일 이상 더 지속할 수 없었다. 4월2일 농림부가 무지막지(?)하게도 '구제역'으로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믿고 싶지가 않아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에 보낸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길래 '혹시나' 했지만, 그 기대도 불과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4월4일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 'O형 구제역'으로 병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대를 가졌던 것은, 비단 농림부가 고의적으로 '구

취재: 김동성



## 특 집

###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제역' 발표를 미뤘다는 일부 비판과는 관계없이 기자만이 아닌 모든 독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첫째가는 악성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데다, 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양돈업계가 입는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파주시 파평면 젖소 사육 농가에서 첫 발생

잘 알고 있듯이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감염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과 혀·발굽·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폐사율은 소가 5~7% 정도지만, 돼지는 그 10배인 50~60%에 이른다. 감염속도도 돼지가 소의 100-1,000배나 빠를 정도로 돼지에 치명적인 질병이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소재 권수목장(농장주 김영규, 50세)의 젖소에서 채취한 시료 검사결과 3월26일 가축전

염병으로 의심되는 수포성질병으로 진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장주 김영규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사육중인 젖소 15두중 2두에서 평소보다 사료를 1/2만 섭취하는 식욕부진과 침흘림, 잇몸과 혀·젖꼭지·발굽에 물집과 딱지가 형성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 10두가, 24일에 4두가 추가로 이 같은 증상을 보이자 3월24일 파주시에 신고하였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25일 현장에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질병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 정부 3월27일 '수포성질병'으로 최초 발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신고를 받은 당일(25일) 김옥경 원장과 수의전문가를 현지에서 급파, 가검물을 채취했으며, 26일 가검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했다. 이때 검역원은 검사결과를 '구제역 양성'으로 진단하고 농림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부터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파주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27일(월) 이른 아침부터 농림부와 검역원에는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려

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검역원에서는 곧 발표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다가, 이날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에서 '수포성질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농림부는 3월26일 발생농장과 반경 800m 인근 5개농장의 소 105두를 살처분하여 땅에 묻고, 주변 농장 소독과 함께 발병농장 반경 20km 이내에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또한 '수포성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오염지역에 대해 28일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 3개도 6개 시군 15개 소사육 농장서 발생 - 확산 추세

그러나 4월1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긴장의 화오리 속에 몰아넣었다. 4일에는 또다시 홍성군 갈산면 1곳과 구항면 2곳에서 추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이번에는 충남 보령군과 경기 화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 서해안 벨트를 타고 중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를 보였다. 이어 4월9일에는 또 다시 홍성 2군데서 추가 발생한 후, 경기 용인까지 번져나갔다. 11일에는 서해안이 아닌 내륙 깊숙한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 까지 구제역이 파고 들었다.

4월23일 현재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경기 파주 1곳, 화성 1곳, 용인 1곳, 충남 홍성 10곳, 보령 1곳, 충북 충주 1곳 등 총 3개도 6개시군 15군데서 발생했다. 총 15건중 10건이

홍성에서 집중 발생했다. 특히 홍성은 최초 발생농장이 증상을 보인후 11일이나 지나서야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고 지연으로 초기에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고가 안된 11일간 홍성지역의 돼지 수 만 두가 타 지역의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

으로 나타나, 초동방역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4월3일에는 축협 서울공판장에 출하된 홍성 돼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월20일 현재 구제역이 의심되어 신고한 건수는 총 64건이고, 이중 15건이 구제역(양성)으로, 49건이 구제역이 아닌 것(음성)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O형 바이러스임에도 현재

**(표) 구제역 발생 현황(4월21일 현재)**

판정일	발생두수	발생장소	축주명	발생일	신고일	현지조사	비고
3.26	젓소15두	경기 파주 파평	김영규	3.20	3.25	3.25	106두 살처분
4.1	한우8두	충남 홍성 구항	최창국	3.19	3.31	3.31	28두 살처분
	한우5두	충남 홍성 구항	이봉희	3.26	3.31	3.31	70두 살처분
4.4	한우1두	충남 홍성 갈산	이상재	3.26	4.2	4.2	4두 살처분
	한우16두	충남 보령 주산	이종복	3.28	4.3	4.3	55두 살처분
	젓소7두	경기 화성 비봉	성윤제	3.29	4.2	4.4	30두 살처분
	한우5두	충남 홍성 구항	김인환	3.29	4.3	4.3	48두 살처분
	한우20두	충남 홍성 구항	전학수	3.30	4.2	4.2	53두 살처분
4.9	한우1두	충남 홍성 구항	김갑환	3.30	4.8	4.8	119두 살처분
	한우4두	경기 용인 남사	권병주	4.3	4.8	4.8	81두 살처분
	한우1두	충남 홍성 구항	정현복	4.6	4.7	4.7	272두 살처분
4.11	한우6두	충북 충주 신니	하구용	4.6	4.10	4.10	131두 살처분
4.13	한우1두	충남 홍성 구항	김재교		4.12	4.12	116두 살처분
4.14	한우3두	충남 홍성 구항	서연철		4.13	4.13	143두 살처분
4.16	한우1두	충남 홍성 구항	박광민		4.15	4.15	976두 살처분
계	총94두	한우72, 젓소 22	15농가				총 2,223두 살처분



##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특 집

까지 돼지에서는 한 건도 발생이 없고, 한우와 젃소 등 소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는 한우가 72두, 젃소가 22두로 총 94두이다.

### 소, 돼지 등 우제류 총 2,223두 살처분

4월20일 현재 구제역 발생과 관련, 살처분된 가축은 파주 7농가 106두, 화성 1농가 30두, 용인 2농가 81두, 보령 1농가 55두, 홍성 154농가 1,820두, 충주 16농가 131두 등 총 181농가 2,223두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실적은 파주 696농가 97,539두, 화성 1,142농가 82,802두, 홍성 4,532농가 298,253두, 보령 2,103농가 19,692두, 용인 699농가 60,344두, 충주 1,744농가 57,235두 등 총

10,916농가 615,865두이다.

인근지역에 대한 혈청검사는 367농가에서 1,860두가 실시되었으나 소 9두, 돼지 3두가 양성을 보였으나, 소는 전부 살처분됐고, 돼지는 백신접종에 의한 양성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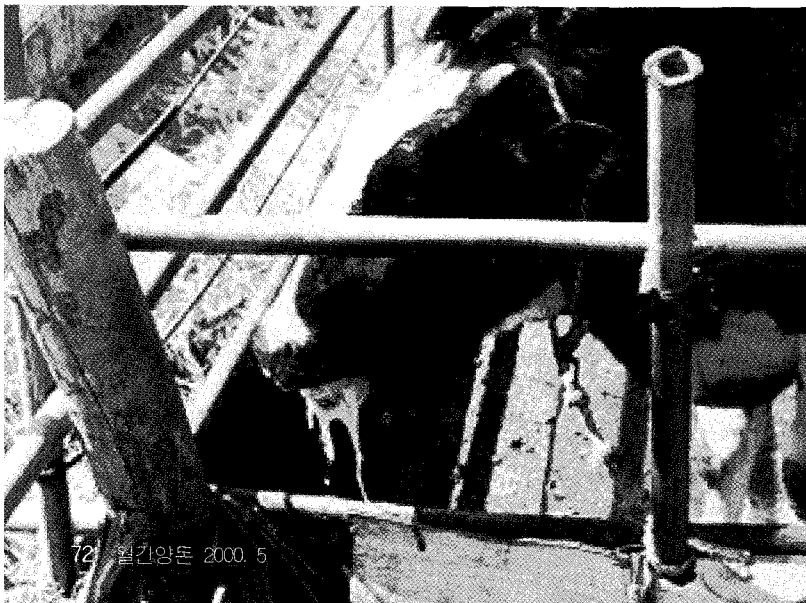
이동제한지역내의 가축 수매는 파주가 소 61두, 돼지 13,712두, 화성 소 519두, 돼지 8,231두, 용인 소 255두, 돼지 4,885두, 보령 돼지 5,244두, 홍성 돼지 14,474두, 충주 소 453두, 돼지 2,673두로 소는 총 1,288두, 돼지는 총 49,219가 이루어졌다. 자돈 수매는 화성 16농가 2,536두, 홍성 246농가 21,712두, 보령 34농가 5,636두 등 총 29,884두가 이루어져 즉시 살처분, 매몰되었다. 이동제한지역의 가축 수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출하 어려움에 따라 모돈과 자돈에 대한 수매, 매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등 한국산 육류 수입금지조치

파주지역은 비교적 초동방역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장주의 신고도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졌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팀이 교과서적인 방역활동을 벌여, 타 지역으로의 차단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후 3주가 지난 4월19일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농림부의 '수포성질병' 발생 사실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일본은 3월27일 '한국산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3월31일 이후 생산되어 수출된 돼지고기의 일본통관이 보류되고, 반송되었다. 이어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수포성질병이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는 발표가 있자 4월10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아예 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개정했다. 잠정적인 수입통관보류 조치가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소 구제역, 젃소가 심한 침을 흘리고 있다.

수입금지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일본에 연간 8-9만톤에 달하던 돼지고기 수출은 중단되었다. 미국과 호주, 대만 등도 한국산 우계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3월25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과 똑같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

**돼지 홍수출하로 돼지값 25% 내외 폭락하기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협 서울공판장을 비롯한 전국의 도매시장과 도축장에는 돼지값 폭락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의 돼지 출하차량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평소 2,600-2,800여두 출하되던 서울 2개 도매시장의 경우 28일에는 4,641두, 29일엔 4,141두나 출하되었다. 1,200-1,300여두 출하되던 경남지역 도매시장에는 28일 136.5% 늘어난 3,028두가 출하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돼지 홍수출하가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3월27일 2,657원이었던 서울 2개 도매시장의 지육값이 28일에는 2,020원으로 하루만에 24%나 폭락했다. 수출육가 공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은 값 폭락 현상이 더욱 심했다. 27일 2,624원이었던 지육가가 28일에는 1,910원으로 무려 27.2%나 폭락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되고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자 전국의 도축장과 도매시장에는 출하차량이 물밀듯이 밀려 들었고 이 여파로**

**돼지값이 25%나 폭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조치로 돼지값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간**

**가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폭락 사태를 맞은 것이다.

**지역간 돼지값 극심한 격차 현상 벌어져**

양돈협회는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돈농가들에게 홍수출하를 자제해 줄 것을 긴급히 당부하는 한편, 농림부에 돼지 긴급수매

및 비축을 건의했다. 농림부는 황급히 3,000억원을 투입, 1일 6,000두씩 수출돼지 전량을 두당 경영비 수준인 14만3천원에 29일부터 수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동제한지역내의 돼지는 16만6백원으로 12.3% 수매가를 인상했다. 이같은 조치로 홍수출하는 진정되었고, 돼지가격은 오르내림을 계속하다가, 4월 하순들어 서울지역은 2,600-2,700원대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남과 전남, 제주 등은 서울보다 300-400원 낮은 2,200-2,3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돼, 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출물량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고, 구제역 발생 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로 육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돼지값이 언제 하락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돼지값이 회복한데는 홍성 등 이동제한지역의 돼지 출하적체와 지역간 유통 제한에 따른 반사효과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제한이 풀리고, 유통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공급물량 증가로 돼지값이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전국 수의사 동원령 발동

농림부는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파주와 같이 발생지 20km 이내를 이동제한지역으로 묶고, 주요 도로망에 초소를 설치, 군·경 공무원 합동으로 가축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반경 10km이내)내의 가축은 전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경계지역(10-20km이내)에 대해서는 가축의 임상증상과 혈청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제한지역내의 가축은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 도축된 고기는 뼈와 부산물을 제거하여 24시간 냉장후 정육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물론 가축분뇨와 사료 등의 수송차량도 출입이 통제되고, 소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 정부 구제역 백신 500만두분 긴급 발주

정부는 이와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장관이 위원인 구제역특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제역 대책에 임하고 있다. 4월4일에는 농림공직자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5일에는 전국 수의사 동원령을 내려

백신접종 지원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을 교수와 축산단체 대표 등을 대폭 보강하여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돼지콜레라 비대본을 구제역 지원대책본부로 잠정 기능을 전환해 방역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검정중단 조치 등을 잇달아 내리는 외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원 외에 재해대책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백신도 500만두분을 영국 등에 긴급 발주했다.

### 양돈협, 비상대책위 구성 등 신속 대처

양돈협회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3월27일부터 전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고 비상대책위 구성,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전국 임원지부장 연석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홍수출하 자제와 모돈 등 10% 감축, 출하체중 감소, 위축자돈 도태 등을 권고, 공급

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총 11차에 걸쳐 중국산 사료용 갈잎 등 수입금지, 구제역 방역철저, 수매비축을 통한 돼지값 안정,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실화 등 총 40여가지의 각종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돼지콜레라 특별대책팀(Task Force)이 마련한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의 대책(안)'을 건의하여 보상금 지급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12검정부의 검정돈 경매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돈농가들에게는 보다 빠른 구제역 발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매일 구제역 속보를 발행, 팩스를 통해 각 지부와 관련기관 등에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구제역 관련 정보를 신속히 게재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양돈협회 인터넷 접속건수는 구제역 발생 이전보다 5배나 증가해 4월24일 현재 6만건 접속을 돌파하기도 했다.

### 구제역 속보 팩스서비스 - 인터넷 접속 급증

구제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자, 양돈협회는 정부에 건의, 군부대의 돼지고기 급식을 60% 늘리고, 정부 각 부처와 초중등학교 등 단체 급식소에 대해 육류급식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구제역이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전국적인 돼지고기 시식회와 소비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도 식단을 육류 위주로 바꾸었다. 대만에서는 97년 구제역 발생시 돼지 살처분, 매몰장면 방영 등으로 소비가 거의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를 교훈삼아 발빠른 행보를 한 것이다.

돼지콜레라 비대본의 활약상은 단연 돋보이고, 귀감이 되고 있다. 비대본은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구제역 방역지원팀을 구성, 파주와 홍성 등에 급파, 백신접종 등 눈부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 냉동담차, 방역복 등 현장에서 필

요한 물품을 긴급 전달했다. 사료회사와 동물약품회사 등 축산관련업체에서도 구제역 발생 지역에 소독약과 사료이송차량, 방역차량, 주사기 등을 지원하면서 방역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

### 돼지콜레라 비대본, 구제역 방역지원팀 급파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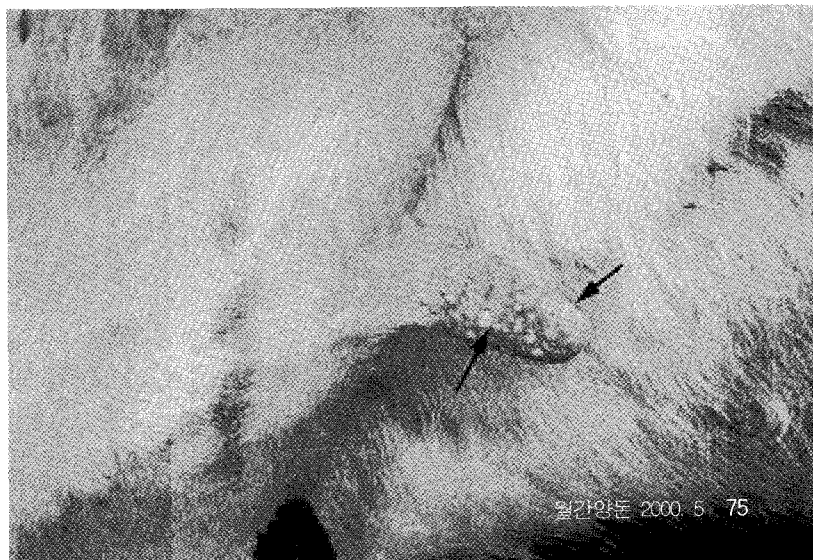
먼저 구제역 발생 지역이 확산되면서 살처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동제한과 같은 초동방역활동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충주시장은 초동방역을 게을리 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홍성군수 또한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특히 이동제한지역내의 돼지 도축시설과 예냉시설 부족으로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홍성에서는 22일 현재 3만8천여두의 돼지가 출하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홍성지역 양돈농가들은 출하적체가 계속되자 8일부터 12일까지 국도를 점거한채 수매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노영빈 홍성지부장 등 7명은 삭발까지 했다.

### 이동제한지역 돼지 출하적체 심각 - 양돈농가 농성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급기야 정부는 정부가 정한 방역원칙을 스스로 접고 돼지와 지육을 이동제한지역 밖으로 출하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반출지역 양축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도

▶구제역에 감염된 젖소 유두에 백색의 수포(화살표)가 형성되어 있다.





## 특 집

### 구제역 발생과 대처방안

축장 입구 차량 봉쇄를 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급정책 때문에 방역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동제한 지역에서는 출하적체로 사료값을 못주고 돈사가 없어 새끼돼지를 파문어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성지역이 워낙 돼지 두수가 많기도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백신접종한 가축의 처리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양돈농가들이 곳곳에서 백신접종을 거부하였고, 생석회 등 소독약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정부가 백신접종 가축은 강제로 살처분하거나 도축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조기청정화 정책과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실험결과 돼지에도 구제역 감염 확인

백신접종은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실험결과 돼지에도 심하게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발생초에 황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두는 듯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같은 주장에 양축농가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일부농가는 황사가 원인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황사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불어왔고, 3월7일 우리나라에 나타난 황사는 중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중에 자외선 등으로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이나, 전문가들은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의 농장출입, 수입 건조, 밀수 육류, 휴전선 인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황사 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돼지고기 수출 재개 상당 기간 소요될 듯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국제수역사무국이 펴낸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후 청정국이 되려면, 살처분 정책을 할 경우엔 최종 발생후 3개월, 백신접종을 할 경우엔 백신접종가축의 전두수

살처분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백신접종후 전두수 살처분을 하지 않고 박멸정책을 펼 경우에는 1년간 발생이 없어야 청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구제역 발생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달리 백신을 했고, 백신접종 가축 전두수 살처분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돼지고기 수출은 빨라야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아무튼 구제역이라는 물은 옆질러졌다.

이제부터 양돈농가들과 양돈 관련업계는 보다 냉정한 자세를 갖고 정부 방역정책에 힘을 모아 주면서 우선 먼저 구제역 박멸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런 다음 차분하게 수출중단에 따른 단기, 중장기 대책과 돼지고기 소비확대 방안 등을 마련,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양돈**